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8월 3일 · 제 368호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김범중 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중국 칭다오찬완 컨테이너터미널, AMP 시범사업 시행
2. 독일 OPDR, 유럽 이베리아반도 연안해운 서비스 강화
3. 세계 선대 증기율 둔화
4. 일본 물류시설 개발업체 다이와 하우스사, 현지 기업과
합작으로 태국 진출 본격화

| 물류시장동향 |

1.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항, 2016년 상반기 처리물동량
전년대비 11% 감소
2. DP 월드사, 대만 카오슝 항만개발 조사 착수





물류정책 · 사업동향

중국 칭다오찬완 컨테이너터미널, AMP 시범사업 시행

- 칭다오찬완 컨테이너터미널이 중국의 새로운 배출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육상전력공급설비(AMP) 설치 및 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함
 - APL Japan 선사는 APL의 합작벤처 컨테이너터미널인 QQCTUA(Qingdao Qianwan United Advance Container Terminal)에서 육상전력공급설비(cold ironing, AMP)¹⁾ 설치 및 운영 연습을 실시했음
- 중국 교통부는 육상전력공급설비(AMP)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7개 터미널을 선정함
 - 시범사업 예정인 7개 터미널은 련원강(Lianyungang) 새로운 동측 ① 컨테이너터미널 27번 선석과 ② Zi Yu Lan 여객선이 접안하는 선석, ③ 광저우(Guangzhou)항 난샤(Nansha) 구역 터미널, ④ 선전(Shenzhen)항 옌텐 국제컨테이너터미널(Yantian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3번, ⑤ 상하이(Shanghai)항 오송구 국제크루즈터미널(Wusongkou International Cruise Terminal) 1번 선석, 닝보-저우산 찬산(Ningbo-Zhoushan Chuanshan)항의 ⑥ 코스코(Cosco)선사의 1만 TEU급 선박이 접안하는 컨테이너터미널과 ⑦ 산둥취핑(Shandong Shipping)선사의 25만 DWT급 철광석 운반선이 접안하는 벌크터미널임
 - 중국교통부는 2016년 말에 모든 육상전력공급설비(AMP)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지역 항만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APL사는 칭다오찬완 컨테이너터미널이 중국 교통부에서 육상전력공급설비(AMP) 시범사업을 수행하도록 선정한 7개 터미널은 아닐지라도 규제가 발효되기 전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운영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힘
 - APL사는 계속적인 사업과 책임 있는 운송을 위해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규제가 시행되었을 때 터미널과 선박 모두 규제를 준수하면서 차질 없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했다고 APL사의 CEO인 Jason Wong씨가 밝힘
- 칭다오찬완 컨테이너터미널은 APL사와 협력해서 해당 터미널에 성공적인 AMP 설치·운영 위해 배출가스 저감 기술의 효율성 확보, 설치 작업과 운영관리를 쉽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힘
- 중국 교통부는 2020년까지 중국 주요 항만을 입항하는 선박의 90%까지 육상전력공급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자료 : www.greenport.com, 2016.7.21. / www.shipandbunker.com, 2016.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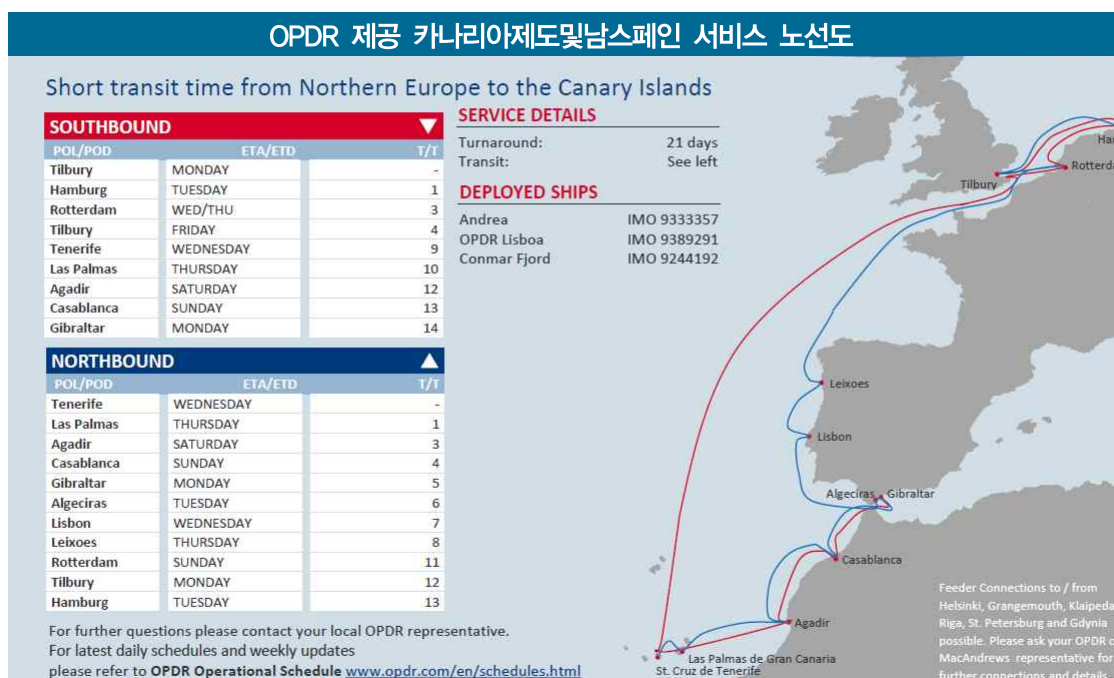
이연경 전문연구원
051-797-4682, eklee@kmi.re.kr

1) 미국의 경우 LB항에서는 Cold Ironing, LA항에서는 AMP(Alternative Maritime Power)라는 이름으로 Shore Power Program(선박에 대한 육상전력공급프로그램)을 시행중임



독일 OPDR, 유럽 이베리아반도 연안해운 서비스 강화

- 독일 함부르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연안해운사 OPDR이 2016년 8월부터 포르투갈 레이송스(Leixoes) 등 이베리아반도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 연안해운(shortsea service)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Worldcargonews가 보도함
 - Worldcargonews에 따르면, OPDR은 최근까지 독일 최대의 항만인 함부르크 항과 포르투갈을 잇는 한 개의 운송루트를 이용해왔음
 - 이에 비해 새로운 연안해운 서비스는 700 TEU급 컨테이너선 3척을 투입해 포르투갈의 레이송스(5일), 리스본(6일) 및 스페인의 지브롤터(8일)를 독일 함부르크와 연결하는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이번에 제공되는 연안해운 서비스는 OPDR이 제공하는 카나리아제도및남스페인(CISS) 서비스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음



자료 : www.opdr.com

- 이밖에도 OPDR은 영국과 러시아의 성 페테르부르크, 북아프리카 모로코 등 유럽 및 북아프리카에서 연안해운 관련 영업력 확장을 모색하고 있음
 - 130년 역사를 가진 OPDR은 전통적으로 유럽-아프리카 항로 서비스에 강세를 보여왔음
 - 초근에는 특히 북유럽, 이베리아반도, 포르투갈, 카나리제도, 마데이라, 북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서비스를 특화시켜왔음
 - 주요 취급 화물은 농산물, 화학품, 기계류, 섬유류,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하며, 이를 위해 팔릿 와이드, 오픈탑, 리퍼 선 등 다양한 유형의 선박으로 선대를 구성하고 있음



- 최근 OPDR은 독일과 영국을 잇는 연안해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 또한 Worldcargonews에 따르면, OPDR은 최근 대형 원양선사인 CMA CGM와 제휴하여 함부르크-성 페테르부르크 직항 및 모로코 카사블랑카 직항 노선의 개설도 추진하고 있음
- 유럽에서의 연안해운은 EU가 205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려는 목표에 따라 더욱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EU는 우선 2030년까지 300km가 넘는 도로운송 화물의 30%를 철도 또는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행정의 단순화, 해당 기업의 신기술 채택 지원과 함께 연안해운과 물류사슬의 완전한 통합 등을 추구하고 있음
 - 유럽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동북아 한-중-일 간 해운 협력 및 복합운송 협력의 향후 발전 방향과 관련해 정책 당국 및 해운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 : www.worldcargonews.com, 2016.8.2

박성준 전문연구원
051-797-4774, sjpark@kmi.re.kr



세계 선대 증가율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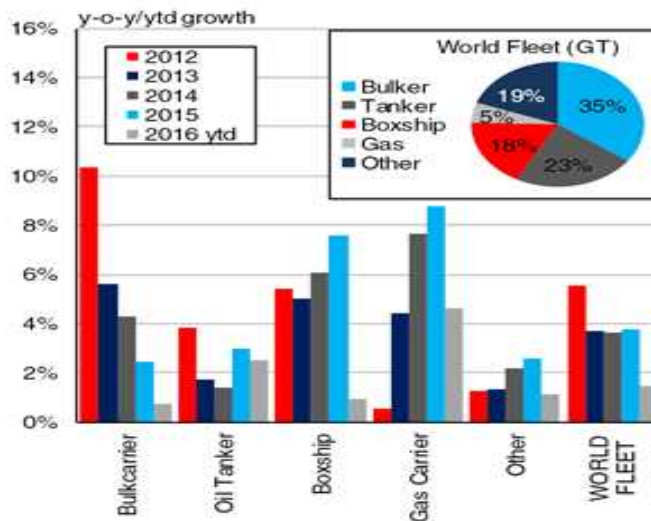
- 선대를 구성하는 선박은 해운 산업 부문 수익구조의 핵심 요소임
 - 세계 선대의 증가율은 해양 산업의 모든 참여자들이 매우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세계 전체의 선대 증가 속도는 느려지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모습을 보임
 - 핵심적인 해운 부문이 포함된 선대의 확장 형태는 폭 넓은 범위의 증가율 추세를 나타냄

세계 선대 증가율(2012년 ~ 2016년 상반기)

Graph of The Month

World Fleet Growth: How's It Getting On By Sector?

The bars show annual fleet growth by vessel sector in GT terms between 2012 and the year to date. The inset pie chart illustrates the global fleet split by vessel sector in GT terms as of 1st July 2016.



Source : Clarksons Research

자료 : www.sin.clarksons.net

- 세계 선대의 증가 속도는 과거 한동안 급속한 확장 이후 최근 감소하고 있음
 - 2016년 7월 초, 전세계 선대는 등록 척수 기준 총 91,773척이며 톤수 기준으로는 1,237 m GT에 이릅니다
 - 과거 높은 수준의 신규 선박 건조 투자와 이에 따른 조선소의 인도 기록을 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선대는 64% 증가했으며 총 규모는 1,035 m GT에 이릅니다
 - 이후, 연간 선대 증가율은 감소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3.7%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 최근에는 세계 선대는 총톤수로는 1.5% 증가했으며, 2016년 말까지 2.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연간 증가율로 보았을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부 핵심 선박 부문에서 최근 들어 낮은 선대 증가율을 기록함
 - 벌크선의 경우, 최근 전체 선대의 35%(432.6 m GT)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1분기 0.7%의 증가율을 기록함
 - 이 외에도, 전세계 컨테이너 선박의 증가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수치로는 2011년에서 2015년까지 평균 4.7% 증가했음(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평균 10.7%의 증가율을 기록함)
- 유조선·가스 부문 선대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함
 - 유조선 선대는 2016년 초부터 현재까지 2.6% 증가했으며, 규모로는 283.3 m GT로 전세계 선대의 23%에 해당하는 수준임
 - 가스 부문 선대 증가율은 2015년 8.8%로 올랐으며, 2016년 1분기 4.6%의 증가율을 기록함
 - LPG 수송 선대는 기업의 수익개선을 통한 신규 선박 건조에 필요한 투자가 가능해지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2015년 9.6%의 증가를 기록하였음
- 공급과잉과 낮은 수요 증가로 어려운 시기를 맞은 해운 관련 산업에 선대 증가율의 둔화는 해운 산업 정상화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임

자료 : www.sin.clarksons.net, 2016.7.23.

박창근 전문연구원
051-797-4781, beinji2@kmi.re.kr



일본 물류시설 개발업체 다이와 하우스사, 현지 기업과 합작으로 태국 진출 본격화

- 일본 다이와 하우스(Daiwa House Industry)사는 태국 사뭇프라칸(Samutprakarn)에 위치하고 있는 전문 물류시설 개발사인 WHA Corporation PCL과 합작투자 협정을 맺음
 - 이번 합정에 따라, WHA Daiwa Logistics Property사가 지난 7월 26일 설립됨
 - WHA Daiwa Logistics Property사는 WHA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람차방 프로젝트와 방나(Bang Na)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관리, 그리고 임대 사업을 담당하게 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WHA Daiwa Logistics Property사는 물류시설의 개발을 위한 투자, 설계, 그리고 건설 관련 노하우와 보유 건물들의 관리 및 운영을 포함해 WHA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통합관리할 예정임
 - 람차방 프로젝트는 태국 최대의 무역항인 람차방(Laem Chabang) 항만으로부터 약 14.7km 떨어진 촌부리(Chonburi) 지역에 78,400m² 규모로 물류시설을 개발 중임
 - * 이 지역은 자국은 물론, 해외로의 유통 루트를 아우르는 곳이기도 함
 - * 인근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이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음
 - 방나 프로젝트는 방콕에서 약 35km 떨어진 사뭇프라칸(Samutprakarn)주 방필리(Bang Phli) 지역에 123,200m² 규모로 개발 중인 물류 프로젝트로, 사업 지역은 스완나품공항(Suvarnabhumi Airport)과는 10km, 방콕 항만과는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 * 이 물류기지는 방콕은 물론 태국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주목을 받고 있음

람차방 프로젝트



방나 프로젝트



자료 : www.tivarati.com

자료: www.tivarati.com



- WHA 그룹은 유리한 입지를 이용해 해외물류시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 할 계획이라고 밝힘
- 다이와 하우스사는 최근 베트남 남부 동나이(Dong Nai) 주 룡탄(Long Thanh) 지역에 룡덕(Long Duc) 산업단지를 개발 중에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 기업들과는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에 위치하고 있는 Cikarang Barat에 다이와 마농갈(Daiwa Manuggal) 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아세안 지역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해외 확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임대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다이와 하우스 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태국은 아세안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일본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국가이기도 함
- 태국의 물류시장이 활황세를 보임에 따라, 다이와 하우스를 비롯한 일본기업들의 물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태국에서의 물류시설 사업이 향후 발전하게 될 것임에 다이와 하우스사의 두 번째 해외 물류시설 개발 사업으로서, WHA 그룹과 함께 WHA Daiwa Logistics Property를 설립하였음

자료 : www.tivarati.com, 2016.7.26.

김주혜 연구원
051-797-4779, joohye915@kmi.re.kr



물류시장동향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항, 2016년 상반기 처리물동량 전년대비 11% 감소

- 올해 1월~6월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항에서 처리된 물동량은 379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11% 감소한 수치를 보임
 - 일반화물의 처리 물동량은 325만 톤으로 전년대비 7% 감소하였으며, 특히 스크랩의 물동량이 41만5천 톤으로 전년대비 43.7%나 감소함
 - 이러한 물동량의 감소추세는 해외수출 부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반면에 철 및 비철금속의 물동량은 각각 15만3천 톤, 78만1천 톤으로 1.8%, 4.5% 증가하였으며 올해 초 철강 및 알루미늄 제조사의 수출확대로 인한 것임
- 하지만 하반기에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해외수출이 증가하여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우드패릿시장 확대로 우드패릿 수출이 20.5%, 초중량화물이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을 기항지로 하는 선박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산 자동차 수출도 1만8천대로 전년대비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www.portnews.ru, 2016.7.28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kmi.re.kr

DP 월드사, 대만 카오슝 항만개발 조사 착수

- 글로벌 항만운영사 DP 월드는 대만 항만 조사를 착수함
 - 글로벌 항만운영사 DP 월드는 대만국제항만공사(Taiwan International Ports Corporation, TIPC)와 MOU를 체결하여 카오슝 항만 7번 터미널을 개발하기로 합의함
- DP 월드의 아흐마드 빈(Ahmed bin) 회장은 DP 월드가 두바이 항만을 개발하며 쌓은 경험이 카오슝 항만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 아흐마드 빈 회장은 두바이와 카오슝 항만이 당초 어항이었던 만큼 개발을 하는데 공통점이 많다고 밝히며 아랍에미리트와 대만 정부는 자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언급함

자료 : www.container-mag.com/2016.7.28.

고재성 연구원
051-797-4776, jsko@kmi.re.kr